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

한 정 호*

차 례

1. 들머리
2. 출생과 가족 관계
3. 학력 사항
4. 등단과 문학 활동
 4. 1. 동인지 『처녀지』를 중심으로
 4. 2. 동인지 『신작품』을 중심으로
5. 문우 관계
6. 마무리

1. 들머리

20세기 우리 문단의 마지막 순수시인이라 불리며 대중에게 널리 사랑 받았던 천상병(1930-1993)이 ‘하늘로 돌아간 지 15년이 지났다.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문학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문학제, 시비 제막, 문학관 건립, 연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그의 삶과 문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껏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한 논의는 작가론·작품론·주제론·비교

*경남대학교 강사

연구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¹⁾ 하지만 앞선 논의는 특정한 시기의 시편들, 특히 1970년 이후의 삶과 문학을 살피는 데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40여 년의 긴 시력(詩歷)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하겠다. 특히 1970년대 이전 그의 초창기 문학행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연구자들의 단일한 접근 태도에 말미암은 바 크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여러 시집이나 전집에 적힌 해적이름 그대로 따랐을 뿐, 적극적인 전기 연구와 자료 발굴을 통해 삶과 문학살이를 찾아내고 기워보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까닭이다.

사실 천상병은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문학활동을 펼쳤으며, 시뿐 아니라 평론으로 등단하여 문단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틀어버린 사건을 겪는다. 그의 삶과 문학에 있어 가장 큰 시련이라 할 수 있는 1967년 동백림(東伯林)간첩단사건이 그것이다.²⁾ 그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기생인 강빈구(姜濱口)가 동독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개월, 그리고 교도소에서 3개월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한 뒤에 선고유예로 풀려났다.³⁾

1) 천상병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1971년 시집 『새』(조광출판사, 1971)를 펴낸 뒤부터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그의 사망 이후 『천상병 전집』 [1시, 2산문(평민사, 1996) 발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천상병의 전기적 생애와 문학활동을 다룬 작가론, 시세계의 특성과 양상을 다룬 주제론, 그리고 같은 시대의 작가·작품과 연관시켜 다룬 비교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생애에 관심을 가진 연구로 민영·김훈·전현미·홍금연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세계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 김성욱·최동호·김우창·이양섭·김재홍·채재순·김은정·박미경·신익호·이자영·배상갑·김영민·박성애·문세영을 들 수 있고, 시의 형식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로 이필규·이진홍·이양섭·함윤호·김희정의 글이 있다. 이밖에 비교 연구로는 조태일·정한용·이경호의 글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도움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2) 1967년 7월 14일자 신문에 실린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공작단 사건', 곧 동백림 공작단사건의 전모와 함께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이 실렸다. 이 사건은 예술인과 대학교수, 공무원 등 194명이 배를린을 거점으로 대남적화 공작을 벌였다고 간첩단사건으로 확대·조작된 것이다.

3) 중앙정보부 발표문에 따르면, 천상병은 강빈구가 '간첩활동을 하고 있어 수사대상 인물

6개월 동안의 옥고와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신과 육체는 망가졌고, 음주로 이어진 무절제한 생활은 그에게 신경황폐증이란 병을 안겨주었다.4) 그러한 상황에서 천상병은 1970년 「귀친」이라는 시를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고 행적을 감추었다.

평소 그와 가까이 지냈던 문우들과 지인들은 그의 행적이 묘연해지자, 그가 죽었다고 판단하여 1971년 유고시집 『새』(조광출판사)를 펴내기에 이르렀다.5)

민영씨가 각 방면으로부터 모았던 그대의 시 60편(미발표작품까지)을, 이번은 성춘복씨가 보다 못해 나서서 맡아 가지고, 서둘러 상재하기에 이르렀으니, 김영태씨가 그대 초상을 그리고, 정인영씨와 김시철씨가 여러 모로 도와 주었네. 이사람아. 여러 친구들이 그대의 모든 작품을 이처럼 아끼는데, 책이 나와야 꼬옥 오려는가.

이사람아. 우리는 부산 피난 때 서로 알았잖나. 이형기씨나 박재삼씨가 써야 할 텐데, 나도 그대의 오랜 친구들 중의 한 사람이래서, 여기에 몇 말씀 올 다니 미안하네, 부끄럽네. 욕심으로 말하면, 그대 평론도 산문도 다 수록하고 싶었던만큼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그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 미루기로 했네.

이사람아. 내 말이 들리는가. 모두 보고 싶어하네. 글씨 왜 그러나. 그러지 말게. 그대 노여움을 풀어드려야지. 그대는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여러 친구들에게 정리(情理)로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지 않나. 간청일세. 어서 대답 좀 하거나. 잊지 못할 사람아.

임을 기화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중앙정보부에서 내사중이라고 말하여 상피의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한 뒤에 수십 차례에 걸쳐 '1백원 내지 6천 5백 원씩 도합 5만여원을 갈취 착복'하면서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4) 목순옥, 「날개 없는 새의 짝이 되어」, 청산, 1993, 195쪽 참조.
 5) 시집 『새』는 1971년 12월 20일 조광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천상병이 오랫동안 행적을 감추자 죽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와 가까이 지냈던 문우들, 성춘복·신동문·강민·김구용·황금찬·이형기·정인영·김시철·최해운·박재삼·민영 등의 문우들이 힘을 모았다. 특히 민영이 잡지나 신문을 뒤져서 시고(詩稿)를 모았고, 성춘복이 운영하던 조광출판사에서 펴내게 되었다. 시집의 제자(題字)는 김구용, 초상은 김영태, 구성은 성춘복이 맡았다.

-김구용, 『발문』, 『새』(조광출판사, 1971) 가운데서

이 시집 발간을 계기로 서울시립 정신병동에 입원중이었던 천상병의 생존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발문>에서 “책이 나와야 오려는가” 하고 적었듯이, 그는 정말 불사조같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 뒤부터 천상병은 문단에 복귀하여 창작에 전념했고, 독자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으며 20여 년을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글은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살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글쓴이가 주목하는 바는 『천상병 전집』(평민사, 1996)에 실린 해적이를 바로잡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집의 기록이 터무니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잘못되고 빠트린 사항은 바로잡고 채워넣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천상병의 삶과 문학세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제대로 소개되고 연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천상병의 삶과 초창기 문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의 밝혀내지 못했거나 잘못 다루었던 출생과 가족관계, 학력관계, 등단과 동인활동, 문우관계 같은 마산·부산지역의 행적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의 전집에서 빠졌거나 잘못 기록된 전기적 생애와 새로이 발굴된 문학작품을 소개할 것이다.

2. 출생과 가족 관계

천상병의 출생지는 일본으로 알려져 왔다. 그를 소개하는 자료나 전집에서조차 일본에서 태어난 것으로 적혀 있는 까닭에, 출생지가 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천상병 자신의 잘못된 기억에 말미암은 바 크다. 왜냐하면 이는 한 차례 고초를 겪고 난 뒤 여러 자료들에 밝힌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천상병의 출생과 가족사항에 대해 따로 조사하고 논의된 바 없다. 앞선 기록과 기억을 기정사실화하며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를테면 앞선 연구자들은 실증적 자료로서의 그의 호적 또는 제적등본조차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전집에 의존하여 그대로 옮겨왔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가계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오류를 되풀이해 왔다.

이에 글쓴이는 그의 출생과 가족사항에 대해 제적등본과 학적부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의 전집에 실린 출생과 가족관계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 1월 29일(양력) 일본 효고[兵庫]현 히로시(姫路市)에서 부 천두용(千斗用)과 모 김일선(金一善) 사이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출생.

천상병의 출생과 가족관계에 대해 밝혀둔 내용의 전부이다. 이에 따르면, 그의 출생지는 일본 효고[兵庫]현 히메이지[姫路]시라고 밝혀두었다.⁶⁾ 하지만 제적등본에 따르면, 그의 출생지는 ‘창원군 진북면 대티리 799번지(현 마산시 진북면)’로 기록되어 있다.⁷⁾ 물론 그가 태어난 때가 나라잃은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도 아버지의 본적지 주소를 따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근거도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같은 제적등본에 그의 누이 천상남(千相南)은 ‘창원군 진동면 진동리 472번지’에서 태어났고, 천정자(千靜子)는 ‘1940년 9월 3일 치배[千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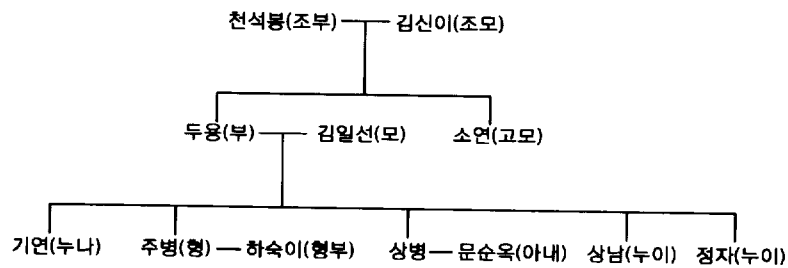
6) 만약 그의 출생지를 일본으로 본다면, ‘효고[兵庫]현 히메이지[姫路]시 동향정(東郷町) 1357번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증조할머니 조남순(趙南順)이 1929년 7월 7일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7) 제적등본에는 1921년 3월 2일 아버지 천두용이 진북면 대티리 799번지에 이거(移居)함에 따라 ‘진동면 진동리 287번지’로 본적란을 정정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마산고등학교 학적부에는 본적이 ‘진동면 진동리 287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 천두용의 직업은 상업, 가족사항은 부모, 형 1, 누나 1, 누이 2명으로 밝혀져 있다. 한편 1950년 그가 복학한 뒤의 학적부에는 본적이 ‘진동면 진동리 289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주소는 ‘마산시 오동동 94-4번지’이며, 아버지의 직업은 무직, 가족사항은 2남 3녀로 적혀 있다.

현 다태야매[館山]시 북정(北町) 2223번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천상병의 가족사항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그는 “부 천두용과 모 김일선 사이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하지만 천상병에게는 누나 천기연(千箕連)이 있었다. 그녀는 1923년 12월 12일 진동면 대티리 799번지에서 장녀로 태어났지만, 세 살 때인 1925년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전 집에서 그의 형제관계가 2남 2녀라고 한 것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누나 천기연을 빠뜨리고 말한 셈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실증적 자료는 마산고등학교 학적부를 들 수 있겠는데 형제 관계가 ‘2남 3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천상병은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천상병의 가계도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집의 해적이와는 달리 실제 작품에서는 그의 출생지 또는 고향에 대해 여러 곳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고향에 관한 작품들을 챙겨보면 다음과 같다.

(1) 내 고향은 세 군데나 된다. / 어릴 때 아홉 살까지 산 / 경남 창원군 진동면이 본 고향이고 / 둘째는 대학 2학년 때까지 보낸 / 부산시이고 / 셋

제는 도일(渡日)하여 살은 / 치바켄 다태야마시이다. / 그러니 고향이 세 군데나 된다.

-「고향 이야기」 가운데서

(2) 내 고향은 경남 진동(鎭東), / 마산에서 사십 리 떨어진 곳 / 바닷가이며 / 산천이 수려하다. // 국교 1년 때까지 살다가 떠난 / 고향도 고향이지만 / 원체 고향은 어디인가? / 태어나기 전의 고향 말이다.

-「고향」 가운데서

(3) 내 고향은 경남 창원군 진동면. 어린 시절 아홉 살 때 일본으로 떠나서, 지금은 서울 사는 나는 향리 소식이 소연(消然)해- / 어른 되어 세 번쯤 갔다 왔지만 옛이 안 돌아옴은 절대진리(絶對眞理)니 어찌 할꼬? 생각건대 칠백 리 밖 향수 필로 달래라…… / 원(願)하노니 향토당산(鄕土堂山)에 묻히고파. 바다가 멀찌감치 보일 듯 말 듯 청명천연(淸明天然)에……

-「고향사념」 전문

(4) 그 왜놈의 회로(嬉路)에서 1930년 1월 29일생이야. / 참으로 무슨놈의 팔자출생(八字出生)일는지 / 그러다가 사납게도 수도 동경부(首都 東京府) 근처로 이사했다.

-「친구」 가운데서

(5) 내가 왜 일본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천석꾼의 아버지가 일본인의 사기에 휘말려 재산을 다 날리고 일본에 건너가 살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우리 식구는 곧 귀환해 마산에 정착했다.

-「들꽃처럼 산 '이순(耳順)의 어린왕자」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43쪽.

(1)에서 천상병은 자신의 고향이 “세 군데나 된다”고 했다. 마산시 진동면, 부산시 수정동⁸⁾, 일본 치바[千葉]현 다태야마[館山]시가 그것이다. 그리고 (2)와 (3)에서는 자신이 경남 마산시 “진동면”에서 태어났으나 “국교

8) 천상병의 대학시절 주소지는 그의 형인 천주병이 살았던 '부산시 수정동 1011번지'였다.

1년 때까지 살다가 떠났다고 적었고, (4)와 (5)에서는 일본 “회로”시에서 태어난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5)에서 그는 일본에서 태어난 이유에 대해 “천석꾼의 아버지가 일본인의 사기에 휘말려 재산을 다 날리고 일본에 건너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그는 출생지에 대해 헛갈리고 있다. 마산 진동이 고향이라고 했다가, 일본에서 태어났다고도 했다. 물론 그의 출생에 관한 정보는 자신의 기억이라기보다 가족이나 친척들의 말에 더욱 의존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6) 내 어릴 적 고향 진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외가도 가까이서 살았던 곳이다. 할아버지가 그곳에 살아계실 때는 천 석까지 하셨다는 꽤나 부유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내 출생지는 일본 히메지[姫路] 시다. 그 후 네 살 때 한국으로 나와 어린 시절을 진동에서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내 고향을 진동면이라고 말한다.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25쪽.

(6)에서 천상병은 “일본 히메지[姫路] 시”에서 태어나 네 살 때 귀국했으며, 어린 시절을 마산 “진동면”에서 보낸 까닭에 자신의 “고향을 진동면이라고 말한다”고 술회했다. 이 또한 그의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줄곧 ‘진동면’과 ‘진북면’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천상병은 출생지에 대한 기억보다는 아홉 살까지 살았던 성장지 진동면에서의 기억에 매여 있는 것이다.

제적등본에 따르면, 천상병은 천기연(누나)·천주병(형)과 같이 ‘진북면 대티리 799번지’에서 태어났고, 천상남(누이)은 ‘진동면 진동리 472번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그의 가족은 진북면 대티리에서 살다가, 그가 네 살 때(1933년) 진동면 진동리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이다. 그뒤 그의 가족은 그가 열 살 되던 해(1939년)에 일본으로 건너갔음을 알 수 있다.⁹⁾ 결국 천상병의 출생지이자 고향은 일본도 진동면도 아

9) 제적등본에 따르면 1943년 11월 22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부 허가에 인하여 <상병>

년 ‘마산시 진북면 대티리 799번지’라고 하겠다.

한편, 그의 가족사항과 성장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작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7) 나의 아버지는 벌써 몇 년 전에 고향, 경상남도 창원군 진북면의 선산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터이지만, 거긴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들의 무덤이 차례로 질서 있게 자리했다. / 나의 형제 자매는 형이 한 사람, 그리고 누이가 둘, 이렇게 나까지 합쳐 넷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바로 아랫자리는 앞으로 내 형의 무덤이 될 평지요, 또 그 바로 밑자리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임에 추호의 틀림이 없는 것이다.

-「천가지변(千哥之辯)」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55쪽.

(8) 아버지 어머니는 / 고향 산소에 있고 // 외톨배기 나는 / 서울에 있고
// 형과 누이들은 / 부산에 있는데, // 여비가 없으니 / 가지 못한다.

-「소릉조(小陵調) -70년 추석에」 가운데서

(7)은 언젠가 고향의 선산을 다녀온 뒤, 그때의 감회를 적은 작품일 터이다. 여기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이 마산시 “진북면의 선산”에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그는 그 선산의 아랫자리는 그의 형과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특히 그는 그 선산의 밑자리가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임에 추호의 틀림이 없”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현재 그의 무덤은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시립묘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그의 형제자매로는 형과 누이 둘을 합쳐 모두 네 명이라고 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형제관계는 2남 3녀로서 다섯 명이였다.

(8)의 시는 1970년도 추석에 적은 작품으로 그 무렵의 가족사항을 엿볼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망하여 “고향 산소”에 묻혔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살고 있으며, 자신은 “외톨배기”로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

을 <실(實)>로 바꿈. 1946년 12월 24일 조선성명복구회에 의하여 이름 복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같은 개명(改名)은 그의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천상병이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추석이지만, “여비가 없으니” 고향에 “가지 못한다”고 슬피했다. 사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던 시절에 적은 작품임을 감안하면, 그 무렵 그의 생활을 나름대로 짐작하고 남는다.

한편, 그는 고향 또는 가족에 대한 어릴 적 기억조차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9) 내가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은 / 내가 일곱 살 때 봄에 / 고향에서, 장독대에서 / 어머니와 정답게 점심 먹은 일이다 // 어릴 때나 클 때에도 / 나는 한번도 맞본 적이 없었다 / 그렇게도 사랑스러웠던 어머니 / 이제 언제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어머니 생각」 가운데서

(10) 어릴 적이었지만은 자가제(自家製) 연날리기를 했단다. / 유리가루를 연실줄에 묻혀서 날린다. / 그러면 5,6세 연령인데도 오십미터 가까이 날아간다. // 연날리기대회는 내 고향, 진동에서는 설날인가 했단다. / 나는 중학생인 형님과 짝을 지어 관망하면서 / 일심(一心)으로 상대가 될 대항자(對抗者)를 찾는다.

-「어머니 변주곡」 가운데서

(11) 제일 처음의 그리움은 내가 어릴 때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자나깨나 어머니였고 어머니 뒤를 쫓아가고파 했다. 무엇이든지 어머니가 최고였고 어머니 아니면 만사가 헛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일이었을 것이다. 이 무렵의 기억은 어머니밖에 없는 것이다. / 그러니까 일곱 살 쯤 되었을 때 나는 주로 형님을 따라다녔다. 형님은 나보다 다섯 살 위였다. 그중에서도 나는 형님이 연을 날리는 것을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상쾌하리라 싶을 만치 그것은 신나는 일이었다.

-「그리움」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47쪽.

(9)에서 시인은 “일곱 살 때 봄”에 고향집 장독대에서 “어머니와 정답게 점심 먹은 일”을 떠올리며, “사랑스러웠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10)과 (11)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릴 적 생각나는 기억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술회했다. 그리고 그는 6세 무렵 설날에 고향에서 형님과 함께 “연 날리기대회”에 참가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이처럼 그의 뇌리 속에는 어머니와 형에 대한 고향 체험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은 어릴 적 마산시 진동면에 서 겪은 단편적인 일상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뒤, 천상병은 열 살 때부터 일본에서 살게 되었는데, 다음은 일본 생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들이다.

(12) 나는 늘 책을 읽고 또 읽고 했다. 언제나 책을 보는 게 내 유일한 일과였는데 더욱이 바로 집 앞에 시립 도서관이 있었기에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도서관이라 하기엔 너무나 작아서 명색이 도서관이지 사실은 살림집을 겸한 아주 작은 집에 몇 명 안 되는 서재와 같은 방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유일한 안식처였고 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 되어 주었던 곳이었다.

-「하숙비로 술집을 찾던 학창 시절」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35쪽.

(13) 내가 일본에서 / 중학교 1학년 때 / 학교 신체검사에서 / 시력이 0.5라는 걸 알았다. //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 “책만 열심히 읽으니 / 그런 꼴이 되지 않나? / 내일부터 해뜰 무렵에 일어나서 / 교외로 나가서 자전거로 / 산야의 청록을 // 열심히 보아라” / 나는 다음날부터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 / 인구 삼만여의 타테야마시[館山市]는 / 즉시로 교외였다. // 만 1년이 지나서 / 또 3학년 신체검사에서 / 나는 내 시력을 0.8로 /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월의 신록」 가운데서

(12)의 수필에서 보듯 중학교 시절 그는 ‘일본의 동경 남쪽의 치배[千葉]현이라는 지방의 T라는 인구 삼만쯤 되는 조그마한 도시’, 곧 다테야마[館山]시에 살았다. 그 무렵 자신의 “유일한 일과”는 책읽기였으며, 독서병에 걸렸다고 할 만큼 집 앞에 있던 “시립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했다. 그런 까닭

에 (13)의 시에서 보듯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나쁘게 나왔는데, 아버지의 권유대로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나가 “산야의 청록을 열심히 보”았음으로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9세부터 15세까지 6년 가량 살았던 일본에서의 체험을 천상병은 독서에 한정시켜 떠올리고 있다. 물론 모든 기억을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일이지만, 6년 남짓 생활했던 일본에서의 기억은 이것이 전부이다.

지금껏 천상병의 출생과 가족사항, 그리고 어릴 적 고향에서의 체험과 일본에서의 기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전집에서 바로잡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그는 마산시 진북면 대티리 799번지에서 태어나, 진동면 진동리 287번지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뒤 그는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족사항도 일찍 죽은 누나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는 2남 3녀 가운데 차남이었다.

3. 학력 사항

천상병의 학력사항에 대해서도 찾아내고 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전집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 2년을 다니다가 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마산공립중학교(현재 마산중·고등학교)에 편입했으며, 졸업 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그만 두었다고 밝혀 두었다. 그의 학력사항에 대한 전집에 실린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간산시(間山市)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2학년 재학중 해방을 맞음.

1945년 일본에서 귀국, 마산에 정착함.

1946년 마산중학 2년에 편입.

1951년 전시중 부산에서 서울대 상과대학 입학.

1954년 서울대 상과대학 수료.

그의 해적이에는 단지 '타태야마[間山]시'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2학년 재학중에 광복을 맞아 귀국했으며, 1946년에 마산중학교 2년에 편입, 졸업 뒤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입학·수료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글쓴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1932년 무렵에 진동면으로 이주했고,¹⁰⁾ 그는 1937년도에 진동보통학교(현재 진동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다녔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형인 천주병이 1939년 진동초등학교를 졸업(24회)했다는 사실을 졸업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천상병의 학적부는 남아 있지 않아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1939년 무렵 그는 형의 졸업과 함께 진동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가족들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14) 어린 시절 나는 무척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위로 형님이 계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무척 귀여워 하셨다. 더구나 외할머니까지도 나를 귀여워하여 이모님과 같이 외가에서 살다시피 했었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 이학년까지 살던 고향 진동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산이 푸르고 앞에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 멀리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에 할머니 손을 잡고 조개를 캐던 기억도 생생하다.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25-26쪽.

(15) 내 어릴 적에는 마산 근처 진동면에서 살았다.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외할머니와 함께 조개도 주웠던 기억이 난다. 형님과 함께 연도 날리며 고향에서 다섯 살까지 살았다. 그 후 일본으로 가서 중학교 이학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마산에서 살았다. 마산중학교 이학년에 편입하여 나는 학교 뒷산에 자주 올라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에 잠기곤 했다.

-「청춘이 그림다」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158쪽.

천상병은 세 살 무렵부터 외가집 근처의 진동¹¹⁾으로 옮겨와 살았다.

10) 이는 천상병의 누이 천상남(千相南)이 1933년 1월 25일 '진동면 진동리 472번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14)의 수필에서 보듯, 그는 외할머니·이모가 살던 외가집에 자주 갔으며, “국민학교 이학년”까지 살았던 “진동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15)에서 그는 진동에서 다섯 살까지 살다가 일본으로 이주했고, 중학교 2학년 때 귀국하여 마산중학교 2학년에 편입했다고 했다. 그의 이같은 기억은 앞의 (14)와는 크게 다르다. 어떤 기억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적고 있을 따름이다.

아무튼 여러 작품과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천상병은 진동초등학교 2년을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다태야마[館山]시의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어 치배[千葉]현립 안방(安房)중학교에 입학하여 다녔다. 그런 다음 광복을 맞아 귀국했으며, 마산중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했던 것이다.

마산중학교 시절의 체험을 작품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6) 그후 일본에서 중학교 이학년 때 나의 고향(아버지의 고향)인 마산으로 왔다. 마산에서 마산중학교 이학년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중학교가 육년제였는데 마산에 살면서도 역시 책을 보는 나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지금은 그 서점의 이름을 잊어버려 생각이 나지 않아 아쉽다) 집에는 가지 않고 먼저 서점에 들르는 게 나의 첫 번째 의무였다.

-「하숙비로 술집을 찾던 학창 시절」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36쪽.

(17) 그후 나는 일본으로 갔다가 중학교 이학년 때 마산 오동동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마산중학교 이학년에 편입한 나는 학교 교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시를 쓰게 된 동기도 산과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반에 있는 친구가 김춘수 선생님의 조카였다. 중학교 오학년 때 알게 된 그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나는 김춘수 선생이 시집 『구름과 장미』의 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 시집을 빌려서 읽었다. 그 때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아 나도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11) 제적등본에 따르면, '마산시 진동면 287번지'로 이주했다고 적혀 있다. 지금의 진동 대성장 여관의 주소와 동일하다.

-『외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26-27쪽.

(16)의 수필에서 그는 마산에서의 학창 시절에도 “첫 번째 의무”마냥 책을 보던 일과를 떠올리고 있다.¹²⁾ 그리고 (17)의 수필에서는 자신이 “시를 좋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적었는데, 그것은 “산과 바다가 있는” 마산에 살았고, 또 마산중학교 5학년 때 김춘수(1922-2004) 시인의 시집 『구름과 장미』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슬회하고 있다.

마산중학교에 편입한 그는 1949년 신병(폐만간)으로 잠시 휴학했다가 1951년 마산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 뒤의 학력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천상병은 1951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여, 1954년 한 학기를 남긴 채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대학시절 그는 경인전쟁(1950. 6. 25)으로 임시수도였던 피난지 부산에서 생활했는데, 그 무렵의 기억을 다음의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다.

(18) 상대에 입학했지만 학과 공부보다 문인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것이 일과였다. 청춘과 음악과 예술을 함께 논하였다. 음악감상실인 ‘르네상스’나 ‘돌체’가 우리의 주된 본거지였다. 브람스 교향곡 4번을 들으며 많이 울기도 했다. 6·25를 전후하여 가난한 속에서 만났던 친구들. 그때의 다방과 술집에는 인정이 넘쳐흘렀다. 전후의 피해상이 참담했으나 문학 동인지들 만들기 위해 떠들고 또 돈 문제로 허덕일 때면 다방과 술집은 사무실도 되고 더러는 재정 후원자도 돼 주었다. 그때 모였던 음악인, 화가, 모두는 한 가족이었다.

-『들꽃처럼 산 ‘이순(耳順)의 어린왕자』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43-44쪽.

(19) 변인호, 나의 첫사랑이었던 여인아! 지금은 어디에 살면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 여인아! 내가 당신에게 연정을 품은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삼십육 년 전, 내가 그때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2학년생이었고 교사는 부산 대신동이었고, 당신이 다니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은 상과대학 근처였으니 알게 된 것 같소. 알게 된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은

12) 학적부에 따르면, 마산중학교 재학시절 천상병의 주소지는 ‘마산시 오동동 94-4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당신은 내가 다니던 미국대사관 도서실에서 내 앞에 앉아 나에게 영어사전을 빌렸던 그때 그 여고생임이 생각났소 그때는 부산이 임시수도라 부산 대청동에 대사관 도서실이 있었던 그때 생각이 역력하오

-「옛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99쪽.

(18)에서 그는 “학과 공부보다 문인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것”이 대학시절의 일과였다고 했다. 앞서 문단에 등단한 그였기에 여러 예술인들과 어울리며 “문학 동인지를 만들기 위해” 분투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기 부산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난한 속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여러 예술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19)는 36년이 지난 뒤에 대학시절을 떠올리며 적은 글이다. 이 수필에서는 “첫사랑이었던 여인”에 대한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1952년 대학교 2학년 때, 그는 부산 대청동에 있던 “미국대사관 도서실”에서 ‘변인호’라는 여인을 처음 만나 연정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금껏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천상병의 학력사항을 보완하여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 마산 진동초등학교 입학.

1939년 진동초등학교 2년 마치고, 일본 다태야마[館山]시에서 ○○초등학교 다님.

1943년 일본 치바[千葉]현립 안방(案房)중학교 입학.

1945년 11월 광복 맞아 귀국, 마산중·고등학교(6년제) 2학년에 편입.

1951년 7월 마산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입학.

1954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수료.

이렇듯 천상병은 1937년 마산의 진동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다니다가, 가족들의 일본 이주로 다태야마[館山]시에서 ○○초등학교(아직 학교명을 밝혀내지 못함)를 마쳤다. 그 뒤 1943년 천엽현립 안방중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을 다니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귀국하여 마산시 오동동에서

거주했다. 1945년 11월 5일 마산중학교(당시 6년제)에 2학년으로 편입, 1949년 신병(폐만간)으로 잠시 휴학했다가, 1951년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경인전쟁 중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했지만, 1954년 한 학기를 남겨둔 채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고 말았다.

4. 등단과 문학 활동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활동에 대해서도 챙겨야 할 자료가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동인활동에 대한 언급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간략한 소개 차원에 머물거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동인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글쓴이는 그의 등단과 동인활동을 중심으로 초창기 문학행보에 대해 다가서고자 한다.

1949년 『죽순』에 시 「피리」, 「공상(空想)」을 발표

1951년 송영택, 김재섭 등과 함께 동인지 「치너지」를 발간.¹³⁾

1952년 『문예』지 1월호에 시 「강물」이 유치환에 의해 1회 추천되었으며, 5·6월 합본호에 「갈매기」가 모운숙에 의해 천료되어 추천이 완료됨.

1953년 『문예』지 신춘호에 「신세대 사유」란에 「나는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다」와 11월호에 「사실의 한계 -허윤석론」이 조연현에 의해 추천완료되어 본격적으로 평론활동을 시작함.

이 내용은 그의 전집에 실린 해적이 가운데 초창기 문학활동 부분만 가려뽑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그의 문단활동은 1949년 『죽순』 11집(1949년 7월호)에 시 「공상(空想)」, 「피리」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13) 김재섭이 「치너지」 동인으로 참가했다는 기록은 잘못이다. 그는 「치너지」가 아닌 「신작품」 동인으로 참가했다.

수 있다. 그때는 마산중학교 4학년을 다닌 뒤, 신병(폐만간)으로 잠시 휴학 상태에 있었던 시기이다.

(20) 피리를 가졌으면 한다 / 달은 가지 않고 / 달빛은 교묘히 바람만 더
불고- / 벨레소리도 죽은 이 밤 / 내 마음의 슬픈 가락에 울리어 오는 / 아!
피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피리」 가운데서

그가 회고했듯이, 김춘수의 시집 『구름과 장미』를 읽고 감동받아 자신도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20)은 마산중학교 시절에 쓴 작품이다.¹⁴⁾ “피리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고요한 달밤에 “슬픈 가락에 울리어 오는” 피리는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를 계기로 천상병은 1951년 『치너지』 동인으로 참가하여 문학 활동을 펼쳤다.

또한 그는 마산중학교 5학년 때 담임이었던 김춘수 시인의 주선으로 문단에 나서게 되었다.¹⁵⁾ 1952년 1월 『문예』에 시 「강물」이 유치환에 의해 1회 추천되었으며, 5·6월 합본호에 시 「갈매기」가 모운숙에 의해 추천 완료되었던 것이다.¹⁶⁾

14) 천상병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된 동인지 『죽순』에 2편의 시를 발표했다. 이 시는 ‘추천’작으로 적혀 있는데, 추천인이 누구인지는 밝혀놓지 않았다. 아마도 김춘수 시인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 무렵 김춘수는 마산중학교 교사였고, 같은 동인지 『죽순』 11집에 자신의 시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천상병에 대한 김춘수의 회고에 따르면, “나는 교무실에서 그가 나에게 느닷없이 잡혀준 그 알팍한 노트를 펴보며 첫장부터 긴장하게 됐다. 그의 시귀들은 날카롭고 신선하다. 열댓 편 되는 시들을 단숨에 다 읽어 버렸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건 하나의 발견이랄 수가 있었다. 그처럼이나 어쭙던 그의 말씀씨와는 전연 딴판이다. 나는 이들 시 중에서 몇 편을 골라 청마 선생께 보내드렸더니 곧 간단한 독후감과 함께 『문예』에 추천을 하겠다는(본인만 승인한다면) 전갈이 왔다. 『문예』는 그 당시의 유일한 문예지다. 나는 곧 상병을 불러 청마 선생의 뜻을 알렸더니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꾸벅 꾸벅 나에게 몇 번이나 절을 다했다. 그 뒤로 그는 방과후 내 가방을 들고 내 집을 수시로 드나들게 됐다. 이리하여 그는 한동안 내 심부름꾼이 됐다”는 것이다. -김춘수, 『그들이 깃드는 시간』 9 -천상병, 『시와 반시』 1997년 겨울. 참조.

16) 모운숙은 천상병의 「갈매기」 추천평에서 그의 ‘작품은 감상적인 내용을 감상에 머물

(21)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 언덕에 서서 / 내가 / 온종
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 밤새 / 언덕에 서서 / 해바라기처럼 그
리움에 피던 / 그 까닭만은 아니다.

-「강물」 가운데서

이 시는 「문예」에 1회 추천된 작품이다. 이 시의 추천평에서 청마 유치환은 ‘천상병 씨에 대해서는 다음 들어온 작품을 보고 쓰기로 하고 우선 그 작품만을 추천해 둔다’고 적었다. 한편 천상병의 술회에 의하면, (21)은 추석에 마을 뒷산에 올라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니 무덤이 몇 개 있었고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죽음과 무덤을 생각하면서 느낀 감정을 읊었다는 작품이다.

그 무렵 천상병은 1952년 3월부터 「신작품」 동인으로 참가했다. 이는 그의 해적이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다. 그뒤 그는 1953년 「문예」 신춘호에 평론 「나는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다」, 「문예」 11월호에 「사실의 한계 -허윤석론」로 추천(조연현) 완료되어¹⁷⁾ 문학평론가로서의 활동을 보여주었다.¹⁸⁾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촉망받는 시인으로, 또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글쓴이는 전집에서 빠뜨린 자료 발굴을 통해 천상병의 문학활동과 그 성과를 보완하는 데 뜻을 둔다. 마산과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그의 동인 활동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 않게 한 것이 촉망되었다’고 적었다.

17) 천상병은 「온달」이라는 제목의 <당선소감>에서 밝히길, 「M교 시절이었다. 바다를 바라다보는 교정에는 나무가 서 있고, 나무 밑에는 잔디밭이 있었다. 그 잔디밭에서 나는 나의 <꿈> 나의 축제를 벌려 놓았었다. 내가 평론을 쓴다는 것도 그때의 꿈의 하나였다. 나는 평론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

18) 앞서 천상병은 「주간국제」 9호에 「천사의 귀향 : 비극의 초극」(1952. 6), 동인지 「제2 처녀지」에 「인간상의 새로운 성」(1952. 10), 「현대공론」 창간호에 「사람들을 방위하는 유일한 관제」(1953.10), 「협동」 41호에 「실존주의 소고」(1953. 11)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평론을 썼는데, 전집에는 많이 빠져 있다.

4. 1. 동인지 「처녀지」를 중심으로

천상병은 경인전쟁의 와중인 1951년부터 「처녀지」 동인으로 참가하게 된다.¹⁹⁾ 「처녀지(處女地)」 동인들은 1951년 12월 3일에 창간호를 냈고, 10개월 뒤인 1952년 10월 15일에 「제2처녀지(第二處女地)」라는 이름으로 제2집을 펴냈다. “시동인지 하나 가지자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라고 밝혔듯이, 「처녀지」 동인의 출발과 문학에의 열의를 가늠할 수 있다.

「처녀지」는 비록 두 차례의 발간에 그쳤지만, 전쟁기 마산문단이 낳은 값진 성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 무렵 천상병은 마산에서 부산으로 열차 통학을 하며 서울대학교에 다녔는데, 송영택과 함께 「처녀지」를 출판했던 것이다. 「처녀지」 동인은 송영택·천상병·최계락·이선우 등으로 출발했지만, 제1집은 송영택과 천상병의 작품들로만 엮여졌다. 송영택이 편집을 맡았고, 이정숙이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마산의 ‘평민인쇄소’(마산시 완월동 217)에서 인쇄하여, 서울 ‘제일문화사’에서 발행했다. 30쪽 분량으로 값은 2000원으로 밝혀져 있다.

(22) 그대로의 그리움이 / 갈매기로 하여금 / 구름이 되게 하였다. // 기꺼운듯 / 푸른 바다의 이름으로 / 흰 날개를 하늘에 묻어 보내어 // 이제 波濤도 / 빛나는 가슴도 / 구름을 따라 먼 나라로 흘렀다. // 그리하여 몇 번이고 / 몇 번이고 / 날아 오르는 자랑이었다. // 아름다운 마음이었다.

-「갈매기」 전문

「처녀지」 제1집에 천상병은 시 4편과 산문 1편을 발표했다. 시 「약속」, 「갈대」, 「갈매기」, 「나무」와 산문 「그리움에는 이유가 있다」가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그의 전집에도 실려 있다. 여기 인용한 (22)의 시 「갈매기」는 몇 달 뒤 「문예」의 추천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인은 “갈매기”

19) 한정호, 「피난지 마산의 동인지 「처녀지」」, 『지역문학연구』 제12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6.11, 195-200쪽 참조

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보여주고 있다. 푸른 바다의 이름으로 비상하는 그림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자 애쓰는 그의 정서가 묻어 있다.

제2집인 『제2처녀지』에는 여러 동인들이 참여했다. 우선 최계락·송영택·이동준·김정년·천상병·류승근·이경숙·이명자·곽종원·김춘수·김성욱 등이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들 가운데 김춘수와 곽종원은 동인이라기보다 발행인 또는 찬조 문인으로 참여했다고 하겠다.²⁰⁾

『처녀지』에는 시와 산문이 고루 실려 동인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표지 그림은 이준(李俊)이 그렸고, 송영택이 그대로 편집을 맡았으며, 김춘수가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마산합동인쇄주식회사』(마산시 중앙동2가 3-22)에서 인쇄하여 『제일문화사』에서 발행했다. 분량은 40쪽이며, 값은 3000원으로 적혀 있다.

(23) 등대에 불이 켜진다. 바다로 향하여. 하늘은 / 무수한 갈매기떼처럼
가버리었다. / 황혼이 어두워져 가는 저쪽에서 여자처럼 있었다. / 그 수평
선을 가는 것은 항해하는 상선(商船)이 아니고 / 내일의 나의 내일의 항구
(港)이 별이여

-「별」 전문

(24) 사월은 풀벌레들이 울기 시작한다. 작년에 죽은 귀뚜라미도 가냘픈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밤에만 우는 그 풀벌레소리로 나는 외로워져 간다.
외로워져 간다는 것은 나도 그런 풀벌레소리를 하고 싶다는 것인가.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미광(微光)」 전문

천상병은 『제2처녀지』에 시 「별」·「미광」과 비평 「인간상의 새로운 성(城)」을 발표했다. 물론 이들 작품은 그의 전집에 빠져 있다.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23)은 저물어가는 항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등대에 불이 켜”지고 황혼에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그 가운데서

20) 이들 동인 대부분은 부산에서 발간된 동인지 『신작품』에도 참가했다.

“내일의 항구 별”을 기다린다. (24)는 4월(봄날)밤에 들리는 “풀버레소리”에 귀를 기울리며 자신의 고독을 달래고 있는 작품이다. “미광”이 뜻하듯이 작은 희망을 찾고자 한다.

이렇듯 천상병이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처녀지』는 경인전쟁기 마산의 피난문단 속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나왔고, 그 무렵 마산 인근에서 활동하던 젊은 문학도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동인지였다. 그런 점에서 『처녀지』는 경남 출신의 문학인들의 참여와 열정이 돋보였던 문학 동인지였으며, 전쟁기 지역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2 동인지 『신작품』을 중심으로

『신작품』은 경인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3월 부산지역에 모여 있던 대학생(서울대, 동국대, 부산대)들을 중심으로 창간되어, 1954년 12월까지 이어져 모두 8집을 간행하는 결실을 보았다. 『신작품』은 전쟁기 부산지역 젊은 세대들의 문학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역문학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¹⁾

『신작품』 동인지는 1집(1952. 3), 2집(1952. 6. 16), 3집(1952. 7. 12), 4집(1953. 4. 15), 5집(1953. 5. 20), 6집(1953. 9. 25), 7집(1954. 3. 1), 8집(1954. 12. 31)까지 발간되었다. 1-6집까지는 프린트판으로 시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7-8집은 인쇄판으로 평론이 추가되어 실렸다.²²⁾

천상병은 창간호부터 동인으로 참가하여 창간호에 「오후」, 2집에 「무명(無名)」, 5집에 「푸른 것만이 아니다」, 6집에 「등불」, 7집에 「다음」을 발표했다.

21) 송창우,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1995. 12. 32-39쪽 참조

22) 『신작품』에 참가했던 동인들은 모두 2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줄곧 작품을 발표한 동인은 송영택이었고, 다섯 번 이상을 참가한 동인으로는 천상병·고석규·이동준·김재섭·김일곤을 들 수 있다. 송영택·천상병·이동준은 창간 멤버였고, 김일곤은 2집부터, 김재섭은 3집부터, 고석규는 4집부터 가담하였는데, 이들이 주축이 되어 동인지 『신작품』을 이끌었다고 하겠다.

(25) 그날을 위하여/ 午後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귀를 기울면/ 그래도/ 나는 나의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 있다.

-「오후」 가운데서

(26) 뭐라고 / 말할 수 없이 / 저녁놀이 저가는 것이었다. // 그 시간과 밤을 보면서 / 나는 그 때 /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 봄도 가고 / 어제도 오늘도 이 순간도 / 빨가니 타서 아, 스러지는 놀빔. // 저기 저 하늘을 깎아서 / 하루 빨리 내가 / 나의 무명을 적어야 할 까닭을, // 나를 알려고 한다. / 나를 알려고 한다.

-「무명」 전문

(25)의 시에서 “그날”은 시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 곧 현세적 삶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뜻한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를 부르는 행위는 출구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란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행위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면적 의지이기 때문이다.

(26)의 “그 시간과 밤을 보면서 나는 그때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에서 보여지듯, 삶에서 벗어난 세계와는 대립되어 존재하는 현실로부터 초월하려는 의지로 충만되어 있다. 이처럼 그의 초기시는 초월적 세계로의 지향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²³⁾

(27) 저 조그마한 불길 속에 / 누가 타오른다. / 아프다고 한다. 뜨겁다고 한다. 탄다고 한다. / 허리가 다리가 뼈가 가죽이 재가 된다. /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 어디서 만난 사람이다. / 아, 나의 얼굴 / 코도 입도 속의 살도 / 뼈가, 둘 모두가 재가 되어진다.

-「등불」 전문

(28)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다음」이 있었다// 이

23) 김기혁의 「아웃사이더의 시학론」(『현대문학』 1994년 1월호)에서는 천상병의 초기시가 보여주는 초월적 지향의식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새벽. 이 「다음」/ 이 絶對한 不可抗力을/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가운데서

경인전쟁기에 발표한 이들 작품은 전쟁의 참상과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27)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결핍된 현실, 죽음과 절망이 나뉘는 세계는 그로 하여금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28)에서 천상병은 자신의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음”은 곧 미래요, 희망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천상병이 보여준 ‘자유’와 ‘초월’은 전쟁기 구체 현실을 반영하고 극복하려는 비판적 정신이 아니다. 그보다는 ‘시’라는 형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형이상학적 사유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전쟁의 폐허는 그로 하여금 현실에 눈뜨는 계기를 주었다. 따라서 천상병의 초창기 시세계는 애상과 그리움, 고독이라는 특유의 감성으로 응집되고 있다고 하겠다.

천상병의 등단과 관련하여 초창기 문학활동에 대해 전집에 실린 내용을 바로잡고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1949년 「죽순」(1949. 7)에 시 「피리」, 「공상」을 발표.

1951년 송영택과 함께 동인지 「처녀지」를 발간. 「처녀지」(1951. 12)에 「나무」, 「약속」, 「갈대」를 발표.

1952년 「문예」 13호(1952. 1)에 시 「강물」이 유치환에 의해 1회 추천. 「신작품」 동인으로 참가하여 창간호(1952. 3)에 「오후」 발표. 「문예」 5-6합본호(1952. 6)에 「갈매기」가 모윤숙에 의해 추천 완료. 「신작품」 2집(1952. 6)에 「무명(無名)」 발표. 「제2처녀지」(1952. 10)에 시 「별」, 「미광」 그리고 비평 「인간상의 새로운 성(城)」을 발표.

1953년 「문예」 15호(1953. 2)에 평론 「나는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다 -내일의 작가와 시인」 1회 추천. 「신작품」 5집(1953. 5)에 「푸른 것만이

아니다」 발표. 『전선문학』5호(1953. 5)에 「무명전사」 발표. 『신작품』 6집(1953. 9)에 「등불」 발표. 『문예』18호(1953. 11)에 「사진의 한계 -허윤석론」이 조연현에 의해 추천 완료.

1954년 『문화춘추』5호(1954. 2)에 「문예시평」 발표. 『신작품』 7집(1954. 3)에 「다음」 발표.

이렇듯 천상병의 초창기 문학활동은 광복기와 전쟁기를 거치는 동안 마산과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1949년 마산중학교 시절부터 『죽순』 동인지에 시를 발표했고, 이를 시작으로 송영택과 함께 『처녀지』 동인을 이끌었으며, 『문예』에 시와 평론이 추천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처녀지』와 『신작품』 동인지를 통해 문단활동을 펼쳐나갔던 것이다. 물론 그는 계속적으로 여러 매체에 작품을 발표하며 왕성한 문단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5. 문우 관계

천상병은 문학 초창기부터 여러 문학인·예술인들과 교류했다. 먼저, 그로 하여금 문학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고 문학의 길을 열어준 문학인은 김춘수였다. 앞서도 말했듯이 마산중학교 재학 시절에 국어교사였던 김춘수 시인의 영향으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문예』지 추천을 받게 된 일도 김춘수 시인이 잡지사에 원고를 보낸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상병이 『죽순』지에 시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김춘수 시인은 『처녀지』 동인의 발행인을 맡았고, 동인지 『신작품』에도 작품을 발표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천상병과 절친했던 문학인으로는 안장현을 들 수 있다. 안장현(1928-2003)은 마산중학교 동기(同期)로 평소 매우 가깝게 지냈던 문학

인이다.

(29) 우선 안장현은 / 마산중학교(육년제)의 동기동창으로 / 경남출신 부산출신이라는 것도 같고 / 키가 남보다 훨씬 크고 / 균형있는 호남아이다. // 한글전용병에 미쳐서 / 한글문학회도 만들고 / 그 회장이다. // 접장질을 하는 주제에 / 『한글문학』이라는 잡지도 내고 / 시도 잘 쓴다. // 인물됨은 과묵하고 / 쓸데없는 말은 일체 안 하고 / 친구를 위해선 몸을 바치는 사나이.
-「안장현론」 전문

(29)는 문우 “안장현”에 대한 기억과 그의 행적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가 말했듯이, 안장현은 “마산중학교 동기동창”이고 “경남 출신 부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그만큼 서로 절친했던 사이였다. 그런 안장현은 시도 잘 쓰며 “친구를 위해선 몸을 바치는 사나이”라고 추켜세웠다.²⁴⁾

또한 천상병은 『처녀지』 동인이었던 송영택·이동준·김성욱·최계락과 절친했다. 이들 가운데 송영택은 앞서 살핀 『처녀지』와 『신작품』 동인지를 천상병과 함께 이끌었던 점으로 미루어, 친분이 두터웠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는 진주에 거주했던 이형기와도 서로 교류했으며, 그밖의 『처녀지』 동인들과도 가깝게 지냈을 것이다.

(30) 6·25를 전후하여 가난한 속에서 만났던 친구들. 그때의 다방과 술집에는 인정이 넘쳐흘렀다 전후의 피해상이 참담했으나 문학 동인지를 만들기 위해 떠돌고 또 돈 문제로 허덕일 때면 다방과 술집은 사무실도 되고 더러는 재정 후원자도 돼 주었다. 그때 모였던 음악인, 화가,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

지금의 세대는 상상할 수 없으리라. 형편없이 가난했지만 우정과 인정이 흐르던 시대였다. 그 중 몇몇 친구들은 저 세상에서 산다. 모상원, 박봉우, 하인두, 더욱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이자 처남인 목순복이도 갔다.

-「들꽃처럼 산 ‘이순(耳順)의 어린왕자’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43-44쪽.

24) 뒷날 안장현도 그가 주재했던 『한글문학』을 통해 천상병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남겼다.

(31)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행동이지만 그래도 그 시절은 좋았다. 대학에 들어가는 교지를 만들기도 했다. 전 부총리셨던 조순 선생님께서도 좋은 격려의 말씀도 들었던 학교생활이었다. 생활은 소설가이신 한무숙 선생님 덕에서 했다. 더욱이 한무숙 선생님의 남편인 김진홍 선생님은 대학의 대선배이신 분이었기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 / 또한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한말숙 씨(소설가)는 한무숙 선생님과 자매였기 때문에 나로 인해 속을 많이 썩었으리라. 그리고 한말숙 씨와 같은 언어학과에 다니던 변인호 씨를 무척 좋아했다. 그때 난 상대에서 문리대로 강의를 들으러 갈 만큼 그녀를 보는 데 열심이였다. 아마 그때 나는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의할머니 손잡고 걸던 바닷가」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28쪽.

(32) 예전의 일이다. 몇 작가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놀 때에 모 씨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팔자가 좋을까라고 하니까 김종문 씨가 대뜸 저기 있잖아 저기라고 하면서 나를 손짓했다. 만좌홍소(滿座哄笑)를 사교계의 홍일점처럼 어느 자리에서나 받기를 좋아하는 나도 그때만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최고팔자씨의 심중평야(心中平野)에 갑자기 사양이 깃든 요즈음 생각 하면 가슴 아픈 일이었다.

-「서울 부재」 가운데서, 『천상병 전집 2산문』, 17쪽.

이들 산문에 따르면, 천상병은 부산에서의 대학 시절에 조순·한무숙·한말숙·김구용·모상원·박봉우·하인두 등의 문학인들과 친분이 깊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32)에서는 전쟁기 서울과 부산에서의 문우 김종문, 안장현, 최계락에 관한 추억을 중심으로 적고 있다.

한편, 앞서 거론한 문학인 말고도 광복과 전쟁기에 걸치는 동안 마산지역과 연고를 가졌던 문학인으로는 조향·김수돈·정진업·이일래·이영도·구상·김상옥·김태홍·김남조·이석·오상순·이원섭·김세익·문덕수·박양·김대규·남윤철·민웅식·박철석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부산과 연고를 가졌던 고석규·이동준·김재섭·김일곤·손경하·하연승·조영서 등의 「신작품」 동인들과 김성욱·김종길·김현승 등의 「시연구」 동인들과도 교류가 잦았을 것이다.

이렇듯 천상병은 초창기 문학활동에서 이들 문학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1950년대 우리 문단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그는 경인전쟁 이후, 특히 1960년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민영·성춘복·김영태·최해운·신동문·정인영·이형기·박재삼·하동호 등과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실종으로 첫시집이 되어버린 『새』의 발간에 애썼던 문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쉬 짐작되는 일이다.

천상병 시 가운데 문학인을 대상으로 쓴 작품으로는 「곡 신동엽」, 「김관식의 입관」, 「김종삼씨 가시다」, 「고 박봉우를 추억하며」, 「중광 스님」, 「서정주 선생」, 「강태열 시인」, 「안장현론」 등이 있다.²⁵⁾

(33) 카페 '귀천'에 와서 / 옆에 있는 사진을 보니 / 박봉우의 사진이 있었
다. // 살아 생전에 그렇게도 다정다감했던 봉우. / 그렇게도 말 잘하던 봉우
/ 생각느니 / 천국에 갔으리라 믿는다 / 천국에서 다복을 누리리라...

-「고(故) 박봉우를 추억하며」 전문

(33)은 “카페 귀천” 걸려있는 문우 박봉우(1934-1990)의 사진을 보며, 평소 “다정다감했던” 그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명복을 빌고 있는 작품이다. 천상병과 박봉우는 1960년대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고 한다. 천상병은 산문 「울분을 토하다 미친 박봉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로 ‘박봉우 시인’을 꼽고 있다. “그때만 해도 6·25를 겪은 전쟁 후라 50년과 60년 폐허의 격동기에 한참 젊은 나이의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며 시를 읽고 논하는 무서움 없는 젊음이었다. 명동 거리를 누비며 대포 한 잔에 목을 축이며 삶의 의욕에 부풀어 있었다. 박 시인은 그 울분을 토하다 못해 정신병원을 오가며 무척이나 고생을 했다. 남보다 의욕과 패기와 울분이 많았던 친구인 그는 끝내 가슴에서 그것들을 토하곤 했었다”고 박봉우 시인을 떠올리고 있다.

25) 또한 천상병은 울분을 토하다 미친 박봉우, 「동생 이외수」, 「내가 아는 중광 스님」에 대한 산문을 적고 있다. 그리고 작가론으로 「신동엽의 시」, 「김현승론」, 「김남조론」, 「김윤성론」, 「허윤석론」을 썼다.

지금껏 천상병이 마산·부산지역에서 초창기 문학활동 중에 영향을 받거나 사귀었던 문학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산중학교 재학 시절에 국어교사였던 김춘수 시인을 비롯하여 동기였던 안장현, 부산에서의 대학시절 『치너지』 동인이었던 송영택·이동준·김성욱·최계락, 그밖에도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문학인들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다.

6. 마무리

지금껏 글쓴이는 천상병 시인의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해낸다는 차원에서, 그의 초창기 문학살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그의 출생과 가족사항, 학력사항, 문단활동, 문우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 '동백림사건'은 그의 육체를 망가뜨렸고, 온전한 기억에 장애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단에 다시 돌아온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론의 '문단소식'란이나 주변 문학인, 그리고 부인 목순옥에 의해 채워졌을 것이다. 그뒤 천상병의 삶과 문학활동에 대해서는 전집의 해적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렇듯 천상병의 삶은 너무나 불우했고, 문학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불운의 사건을 예감이라도 했었는지, 「새」가 그의 자전적 행보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 내 영혼의 빈 터에 / 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
 잎 필 때는, / 내가 죽는 날 / 그 다음날. // 산다는 것과 / 아름다운 것과 /
 사랑한다는 것과 노래가 / 한창인 때에 /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
 한 마리 새. // 정감에 그득찬 계절, / 슬픔과 기쁨의 주일, /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 새여 너는 / 낡은 목청을 뽑아라. // 살아서 / 좋은 일도
 있었다고 / 나쁜 일도 있었다고 /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새」, 「여상(女像)」(1965. 3) 전문

천상병은 자신이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예감했지만, 그의 시를 사랑하는 독자가 많았기에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분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새”의 노래마냥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되뇌게 한다.

지금도 천상병의 자취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화랑 골목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찻집 <귀천>이 그곳이다. 부인 목순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해 두었다. 천상병의 삶과 문학살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인 셈이다. 이즈음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양사업을 소개해 봄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경남 산청군의 경우를 찾을 수 있다. 2003년 5월 한국시사랑문인협회가 주최가 되어 천상병의 「귀천」 시비를 중산리공원에 세웠고, 이듬해 5월부터 ‘천상병 문학제’를 열어오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문학세미나, ‘천상병 시문학상’ 시상, 시낭송회, 사이버백일장 등이다.

둘째,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이다. 2004년 4월 경기문화재단과 의정부시가 공동 주최로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일원에 「귀천」 시비를 세웠고, 해마다 ‘천상병 예술제’를 열고 있다. 주요 행사로 학술심포지엄, 음악회, 시낭송회, 미술전, 백일장 등을 열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천상병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경우이다. 2007년 11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대야도에서 ‘시인의 섬’ 펜션을 운영하는 모종인은 의정부시 수락산 자락에 살던 천상병의 집을 원형 그대로 복원했고 작품을 전시하여 ‘시인 천상병 고택과 문학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했다. 단순히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이다. 인사동에 찻집 <귀천>을 운영하면서, 노원구에서 8년 동안 거주한 것을 기념하여 상계동 인근에 ‘천상병 시인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의 시비와 동상,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정자인 ‘귀천정’을 세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2001년에 유가족과 도서출판 답게가 제정하고 경기문화재단

이 후원하고 있는 '천상병 시상', 2003년 5월에 한국시사랑문인협회가 제정하여 산청군의 천상병 문학제 때 시상하고 '천상병 시문학상'도 그의 시정신을 기리는 주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견주어, 그의 초창기 문학살이가 깃든 마산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여러 문학인들과 나란히 용마산 산호공원 '시의 거리'에 천상병 시비를 세웠고, 마산의 문학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천상병의 명성과 인기를 알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몇 해 전(2006년 7월 21일)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뒤 많은 세상을 살다간 화가 이용노, 작곡가 윤이상, 시인 천상병을 추모하는 행사인 '동백림사건 연루 예술거장 3인 추모제'가 열렸다. 이를 통해 참으로 순수했던 시인의 행보가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바로 평가되길 바란다.

이처럼 언제나 사회의 부조리보다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노래함으로써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시인 천상병, 이제 그는 우리문학사에 서 지울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양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 핵심어: 천상병, 초창기 문학, 가족관계, 학력사항, 문학활동, 동인지, 문우, 현양사업, 『귀친』

<도움글>

1. 기본자료

천상병, 『새』, 조광, 1971.

천상병, 『주막에서』, 민음사, 1979.

천상병,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사, 1984.

천상병, 『구름 손짓하며는』, 문성당, 1985. -산문집

천상병, 『저승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일선, 1987.

천상병, 『귀천』, 살림, 1989.

천상병·중광·이외수, 『도적놈 셋이서』, 인의, 1989.

천상병,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강천, 1990. -산문집

천상병,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답게, 1991.

천상병,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미래사, 1991. -시선집

천상병, 『새』, 답게, 1992.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네』, 청산, 1993.

천상병, 『나는 할아버지다, 요놈들아』, 민음사, 1993. -산문집

천상병, 『귀천』, 살림, 1999. -시선집

천상병, 『천상병 전집 1(시)』, 평민사, 1996.

천상병, 『천상병 전집 2(산문)』, 평민사, 1996.

목순옥, 『날개 없는 새의 짝이 되어』, 청산, 1994.

2. 참고자료

강성미, 『천상병 시 연구 -기독교적 세계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5~13쪽.

김성욱, 『새의 오뇌 -천상병의 시』, 『시문학』 1972. 8.

김영민, 『천상병 시의 초월지향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김우창, 『순결과 객관의 미학 -천상병의 시』, 『창작과 비평』, 1979년 봄호.

- 김우창, 「잃어버린 서정, 잃어버린 세계」, 『천상병 전집』, 평민사, 1996.
- 김은정, 「천상병 시의 물 이미지 연구」, 『한국언어문학』 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 김재홍, 「무소유 또는 자유인의 초상 -천상병론」, 『현대문학』, 1993. 6.
- 김재홍, 「천상병 시인을 찾아서」,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3. 가을.
- 김종호, 「천상병 시의 의미구조 연구」, 『어문연구』 10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봄.
- 김훈, 「'천상병'이라는 풍경」, 『풍경과 상처』, 문학동네, 1994.
- 김훈, 「천상병의 정치의식」, 『풍경과 상처』, 문학동네, 1994.
- 김훈, 「아름다운 운명」,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도서출판 강천, 1990.
- 김희정, 「천상병 전기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16~20쪽.
- 문순옥, 「날개 없는 새의 짝이 되어」, 청산, 1993, 195쪽.
- 문세영, 「천상병 시의 모성회귀성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민경호, 「천상병 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7~16쪽.
- 민영, 「천상병을 찾아서」,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강천, 1990.
- 민영, 「짜릿한 박하술 맛」, 『나 하늘로 돌아가네』, 청산, 1993.
- 박미경, 「천상병 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1996.
- 박성애, 「천상병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0~20쪽.
- 박숙애, 「천상병 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박순덕, 「천상병 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배상갑, 「천상병 시의 시간성과 공간성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2, 11~24쪽.

- 서수경, 「술, 가난, 그리고 시」, 『현대문학』, 1988. 8.
- 송창우,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1995, 32~39쪽.
- 신익호, 「천상병 시 연구」, 『한남어문학』 21집,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6.
- 안수환, 「천상병론 -우주율의 현2」, 『시문학』, 1994. 3.
- 이경호, 「보헤미안의 미학 혹은 천진성의 시학 -천상병·김종삼·박용래의 시세계」, 『현대시학』, 1993. 6.
- 이남호, 「뮤즈가 노래한 시 이전의 시 -천상병의 시」, 『현대시사상』, 1996. 겨울호.
- 이만교, 「천상병 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6~30쪽.
- 이양섭, 「천상병 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20~25쪽.
- 이유진, 「천상병 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자영, 「천상병 시의 공간과 시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7.
- 이진홍, 「천상병의 <새>의 심상 연구」, 『논문집』, 17호, 대구산업정보대학, 2003.
- 이필규, 「천상병 전시시의 '새'와 가난」, 『북악논총』, 18호, 국민대학교출판부, 2001.
- 전현미, 「천상병 시세계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10~19쪽.
- 정한용, 「한국 현대시의 초월 지향성 연구 -김종삼, 박용래, 천상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6, 11~24쪽.
- 조태일, 「민중언어의 발견 -다섯 분의 시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1972년 봄호.

- 채재순, 「이미지 고찰을 통한 천상병의 시의식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대학원, 1998, 7~17쪽.
- 최동호, 「천상병의 무욕과 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미래사, 1991.
- 하인두, 「우리시대의 괴짜 천상병과 박봉우」, 『월간중앙』, 1989. 4
- 한정호, 「피난지 마산의 동인지 『처녀지』」, 『지역문학연구』 제12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5, 195~200쪽.
- 함윤호, 「천상병 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8~18쪽.
- 홍금연, 「천상병 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20~28쪽.

<Abstract>

A Study on Chun Sang-Byung's Initial Literary Life

Han Jeong-ho

A discussion on lifetime and literature of Chun Sang-Byung(1930-1993) have been done to be loved by people referred to the last pure poet of Korea literary circles in 20th century in various sides. Nevertheless, Total discussion of him has been weakness, In special, A discussion on his initial literature before 1970 have difficult to discover. Therefore, this paper be willing to investigate Chun Sang-Bung's lifetime and initial literary life concentrately. I examined into achievement for Masan and Pusan region to make not clear or wrong deal such as birth, family relations, educational matter, literary activity, take the rostrum and associate activity, literary friend by existing study.

1. He was born in 799 Jinbukmeon Daiti, Masan city to move 287 Jindong, Jindongmeon. Since that time, he came over Japan. and the family matter of his were the second son among two male-three female to guess for dying elder sister.

2. He entranced into Jin Dong elementary school to study for two years in 1937 and finished primary school in Dataeyama[館山] because family migration were moved for Japan. Since that time, he entranced Chunyup Anbang's middle school in 1943 and going to three grade. Returning home from abroad with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1945,

he resided in Odongdong, Masan city. he entered for two grade in Masan middle school and finished high school in 1951 to withdraw from school because physical restraint in 1949 and entered college of commerce, Seoul University in Pusan during Korea War. But he gave up University to leave over one term in 1954.

3. The literary activity of the early days of him realized his desire in Masan and Pusan region dur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duration of Korean War. So to say, From Masan high school times in 1949, he released poetry in Jucksun(竹筍) little magazine. Starting this point, leading little magazine of Chunyugi(處女地) with Song Young-Tack. watching literary circles to recommend poetry and criticism in Moonyee(文藝). Particularly, he stretched at literary working though little magazine Chunyugi and Sinjackpum(新作品). in addition to another literary activity.

4. I looked him into literary man to be influenced and acquainted among initial literature in Masan·Pusan region. Kim Chun-Su poet, korean language the period of attendance at Masan high school. An Jang-Hyun, the same class, Song Young-Tack, Lee Dong-Jun, Kim Sang-Uk, Choi Kee-Rak, many other things, interchange the same age literary man for little magazine Chunyugi at university time in Pusan,

In this way, he had rather value to purity and beautiful life than society improperness, taking love of people in general and he was enthroned at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these days, progress to smooth commemorative project to propel in variety of region. I will want to work as mediation things transmitting beauty in the world.

- keywords: Chun Sang-Byung, initial literature, family relations, educational matter, literary ability, little magazine, literary friend, commemorative project

-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